

주제            일상과 대조되는 숲의 선선했

전체 스토리    “실내 공간에서 숲을 상상한다.”

실내 공간과 숲 공간을 계속해서 교차시켜 보여준다. 하지만,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두 공간의 경계를 점점 더 모호하게 만들어 실내에서 숲을 그리워하며 상상하다 못해 마침내 환각을 보는 듯한(!) 느낌으로 연출한다.

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따르되, 각각의 씬들은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함.



- 두 공간의 경계를 어떻게 모호하게 만들 것인가?

### 1. 데페이즈망

실내공간 안에 나무를, 숲 공간 안에 가구를 놓아 본다.

### 2. 바람에 흩날리는 오브제

배경 가운데에 오브제가 떠 있는 구도로,  
실내 공간에 나뭇잎이 흩날리고, 숲 공간에 종이들이 흩날린다.

이 두 장면을 앞뒤로 병치한다. (주제가 잘못 읽힐 가능성 방지)



### 3. 실내 - 창문 밖 풍경 바꾸기

- 모델링된 실내 배경에 숲 HDR을 입혀 창문 밖 풍경을 바꾼다.

- 끌라주를 한다.

- 1) 에펙에서 창문을 따라 마스크를 씌워 숲(혹은 종이 이미지)으로 끌라주한다.
- 2) 숲 장면에서 모델링된 오브제 나무들이 있다면, 배경은 지우고 크로마키 색을 씌워 에펙에서 종이 이미지로 끌라주한다.



- 실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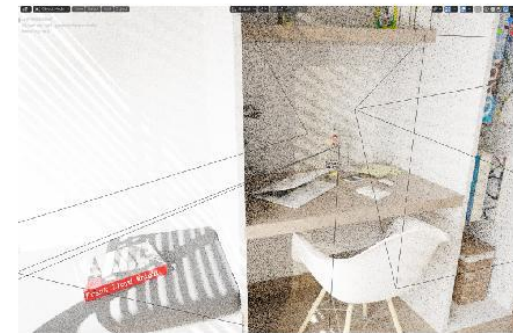


(빨간 책등 등 색상이 튀는 부분은 수정한다.)

방이 지나치게 깔끔한가?

- 일상의 무게나 복잡함 같은 (숲과 대조되는) 심경을 표현하려면

종이 오브제를 다운받고 그 위에 글자나 그림을 맵핑하여 벽에 붙여 꾸미는 것은 어떨까?



## 연출 아이디어

편집했을 때 앞뒤 씬 카메라 이동을 유사하게 하면 통일감이 생긴다.  
혹은 배경이 다를지라도 사물의 위치나 움직임이 연결되게 하면 좋다.

- 실내 3d 씬 카메라 동선을 짤 때 고려

\* 실내 씬에 바람 부는 효과를 더할 수 있는가?  
(블라인드나 종이 등 물체를 움직여서 지루함을 줄인다)



일상 씬에서 숲 사진을 벽에 붙여두거나 책상에 올려두고 찍어서  
약간의 스토리를 주고,  
이 방의 주인이 숲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물로 씬

+ 이 다음 씬에 방 전체에 커다란 사진들을 걸어놓은 씬 추가해도 좋을 것 같음  
(더욱 노골적인 상징, 비현실적 세트장처럼)

>> 사진 속 숲과 실제 숲의 차이가 부각되면 좋을 것  
(사진을 통해 그리움을 해소하지만 한계가 있음, 실제 숲의 느낌 부각)







00:02  
일어나 여기 바람이 잠시 머물러



가는 곳에 혼자선 파란 하늘빛은



허전해 한동안 말없이 또 눈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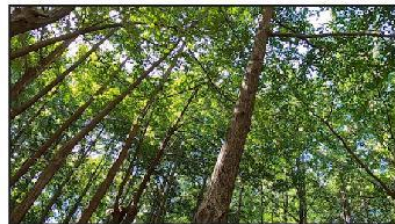
부셨네



여기서 우리



햇볕을 넣은 가지를 바라보자



마음에 담긴 파도를 속삭이자



오랜 시간 속에 묻고 싶은 말이 많았어



Sail to the sunshine



I just wanna realize  
오늘은 이대



로 눈부신



햇살 속에



너 하나만 내 품 안에



담고 싶는데



lying in the sunshin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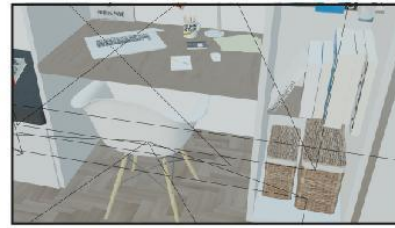
i knew we'd come around



잊고 있었



어



똑같은 일상 속에



숨겨왔던 내 꿈 속에 잠들고 싶어 이대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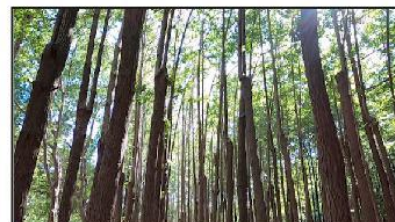
멀리서 바라보면



손끝에 다시 잡힐 것만 같았어  
수많은 밤의 열룩들은 선명해  
한동안 말없이 이 길을 걸었네



여기서 우리 초록이 물든 풍경을 바라



보자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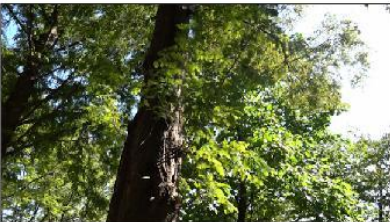
길어진 마음에 그들은 덮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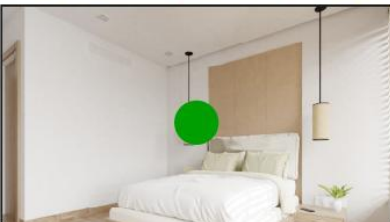
두자 늘 내 가슴속에



전하지 못한 말이 남았어



Sail to th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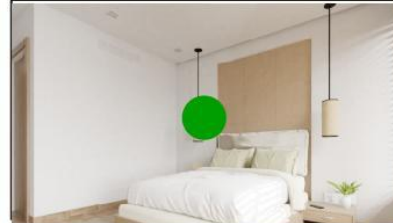
sunshine i just wanna



realize 오늘은 이대



로 눈부신 햇살 속에 너 하나만 내 품안에 담고 싶은데  
lying in the



sunshine i knew we'd



come around 잊고 있었



어  
똑같은 일상 속에  
숨겨왔던 내 꿈속에 잠들고 싶어 이대로.

